

상원사본 <오대진언>의 표기법 연구

안주호

(위덕대학교)

Ahn, Joohoh. 2003. A Study on the Spelling System of Mantras in the Original Sangwensa <Otay Cinen (The Five Great Mantras)>. *The Linguistics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11(1), 69-87. This study is concerned about investigating the rules used in the writing system of Korean, Hangeul, to spell out the Siddhamātrka pronunciation by studying the Sangwensa <Otay Cinen>, in which Siddhamātrka, Chinese characters, and Korean pronunciation are all written on one-to-one basis. In the Korean spelling system, there are right-circled punctuation marks in order to differentiate syllables from one another. In this text, for the initial position 22 consonant letters were used, while for the central and final positions 16 and 8 letters were used, respectively. The initial consonant letters also include "병, △", twin consonant letters "ㄱ, ㄲ", and 's'-type-consonant clusters "ㄱ, ㄴ, ㄷ, ㄹ, ㅁ, ㅂ, ㅅ". Especially, "ㄹ, ㅅ", which were not used in Korean writing system, were used in these Mantras. These "s-clusters" must have been used for the initial consonant clusters and had a phonemic value of its own. The central position was spelled with a vowel or diphthong letters including "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 ㅚ, ㅜ, ㅟ, ㅞ, ㅟ, ㅠ, ㅡ". The final position is either left empty or ended with eight consonant letters,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like in the writing system of <Hunmong Jahoe>.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Otay Cinen> is that the first letter of consonant clusters was used as the ending of the previous syllable. This indicates that the Cinen(mantra) was recited quite differently from the ordinary Korean language. (APA, 2003, pp. 69-87)

주제어(Key words) : Otay Cinen (The Five Great Mantras), Korean spelling system, Siddhamātrka, consonant clusters

1. 머리말

불교가 우리나라로 전래되면서, 불교경전 속에는 '신성한 어구'라는 의미의 만다라(mantra), 즉 진언(眞言)도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 진언은 다른 언어로 옮길 때, 신성성을 해친다 하여 번역하지 않고 음만을 따라야 하는 불번어(不翻語)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진언은 본래의 범어음과는 달리, 범어의 한역음에 더 영향을 받았다. 즉 본래의 진언표기인 범어 자체의 음을 한글로 옮기기보다는 중국에서 한역된 진언음을 한글로 옮기게 됨

으로써, 독특한 표기체계를 갖게 되었다.

이러한 진언은 본래 인도의 데바나가리 문자 이전의 형태인 실담문자(Siddhamātrka)로 쓰여졌는데,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와서는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 훈민정음이 창제되기 전까지 한자로만 음사되었다. 조선시대에는 배불정책에도 불구하고, 진언 독송이 재난을 막아준다는 기복신앙과 맞물려 불가에서는 꾸준히 독송되어 왔으며, 한글이 창제된 후에는 진언을 한글로 적으려는 노력이 더욱 활발해져 한글로 음사된 여러 전적들이 남아 있다. <월인석보(1459년)>(권10의 72-116장, 권21의 70-73장, 권19)에는 진언을 한글로 음사한 부분이 있는데, 이는 한글로 음사된 최초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의 진언 표기는 형식상으로 “한자-한글”의 순으로 월인석보의 다른 내용과 같은 순서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한자음 표기와 동일하다. 진언은 일반 한자음과는 달리 읽히고, 당시에 이미 불가에서 일반화된 독송음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월인석보>에 표기된 진언음은 이러한 독송 원리를 반영하지 않고 동국정운식으로 표기되어 당시의 현실적인 음과는 거리가 있다.

이에 비해 <오대진언(五大眞言, 1485년)>은 본격적인 <진언집>(안심사본, 1569년)이 나오기 이전에 이미 일반적으로 독송되는 현실음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한글로 범어 진언을 비교적 정확히 전사해 놓았고, 한글 표기 옆에 방점까지 붙여있어, 진언의 본래 표기인 범어음과 한자음, 그리고 한글음을 대조해 볼 수 있는 가치있는 자료가 된다. 이 글에서는 <오대진언>의 초간본이라 할 수 있는 상원사본의 진언을 중심으로 당시에 외국어인 범어음을 한글로 표기할 때, 어떤 식으로 표기하고 있는가 하는 표기체계와 음운체계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목적이다. 진언표기의 연구는 외국어를 우리말로 적을 때의 방식에 대한 즉 외래어 표기법에 대한 단서와 한글의 음가와 방점의 기능에 대해 알려 줄 수 있고, 동일한 어구가 한 시기에만 독송되던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속되어 왔으므로 국어의 음운체계와 표기체계의 변화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주므로, 연구의 필요성이 크다 하겠다.

2. <오대진언>의 체재와 특징

본래 <오대진언(五大眞言)>은 중국 당나라 때 승려인 불공(不空)이 범어로 된 것을 한자로 음역한 것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14세기경에 절첩 형식으로 간행이 되었다. (남권희, 1997) 이것은 매우 다양한 이본들이 존재하는데, 1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한글판 오대진언>(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은 한글로만 표기된 점이 특징이다. 안병희(1987)는 <한글판 오대진언>의 한자음 표기는 동국정운이나 홍무정운역훈의 방식을 지양한 최초의 문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오대진언>의 초간본은 실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상원사에서 발견되었다.¹⁾ 이 판본은 성종16년(1485년)에 간행된 것으로, 한문본 <영험약초>와 이것의 언해본이 합본되어 있는데 판심제는 모두 ‘五大’로 되어 있다.²⁾ 오

대진언은 중요한 다섯 개의 진언을 모았다는 뜻인데, 실제 상원사본 <오대진언>에서는 다음과 같이 여섯 개의 큰 진언으로 구분이 되어 있다.

- ①대비심대다라니(千手天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大陀羅尼)<1a-23b>
- ②대비심신묘장구대다라니
(千手天眼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礙大悲心神妙章句大陀羅尼)<24a-29a>
- ③천수천안관자재보살근본다라니(千手天眼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29a-32a>
- ④대수구대명왕대다라니
(佛說金剛頂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32a-59a>
- ⑤대불정다라니(大佛頂陀羅尼)<59a-92b>
- ⑥불경존승다라니(佛頂尊勝陀羅尼)<93a-97b>

이는 각 진언의 명칭이 먼저 표기되고, 각 진언마다 계청문(啓請文)이 나온 후, 여기에 속한 관련 진언들이 나오는데,³⁾ 중 ①-⑤까지의 진언은 진언명 아래에 “대광지 삼장사문 불공봉 소역(大廣智 三藏沙門 不空奉 詔譯)”이라는 내용이 나오고, ⑥은 진언명 다음에 “계민국 삼장사문 불타파리역(鬪賓國 三藏沙門 佛陁波利譯)”이라는 문구가 나온다. 이로 보아, ①-⑤는 범어로 된 것을 ‘불공(不空)’이 한역한 것이며, ⑥은 인도 케시미르 출신의 ‘불타파리(佛陁波利)’가 한역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오대진언>의 구성은 실제로 ①-⑤의 불공의 오대진언과 ⑥의 불타파리에 의한 진언을 모아둔 육대진언(六大眞言)이다.⁴⁾

진언의 표기 순서는 진언명이 먼저 나와 있고, 계청문이 있는 다음, 여기에 진언을 범자, 한글, 그리고 한자로 음사해 놓은 표기가 나와 있다. 진언을 한글로 음역한 사람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나, 불공과 불타파리에 의해 ‘범어’에서 ‘한자’로 음역된 것을 바탕으로 다시 한글로 음사한 것임을 알 수 있다.

1) 이것은 1996년 정재영 교수팀이 상원사의 복장유물에서 발굴한 것으로, 정신문화연구원 의 장경각 등에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되어 있다. 편의를 제공해 주신 장경각의 박용만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말 드리는 바이다. 이 판본에 대한 서지적 고찰과 함께 ‘영험약초’의 언해본에 대한 국어학적 연구는 남경란(1999)에서 이루어졌다.

2) <오대진언>은 이 외에도 여러 이본들이 존재하는데, 한문 원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명종5년(1550년)에 회방사에서 간행된 회방사본이 있으며(홍문각에서 영인), 인조 36년(1635년) 해인사에서 중간된 해인사본 <오대진언>은 서울대 규장각을 비롯하여, 동국대 도서관, 영남대 도서관 등에 소장되어 있다.

3) ③만은 진언명 다음에 계청문이 나오지 않고 바로 진언이 나온다.

4) 그런데 진언 다음에 진언의 영험에 대해 언급해 놓은 ‘영험약초(靈驗略抄)’가 있는데, ‘①대비심다라니, ②수구즉다라니, ③대불정다라니, ④불경존승다라니’의 순으로 영험성에 대해 언급해 놓고 있다.

3. 범어 음운체계와 한글음의 대응

본래 진언을 적던 실담문자의 음운체계는 모음에 해당하는 마다(摩多, matrka) 즉, 12전성(十二轉聲)과 4조음(四助音), 자음에 해당하는 체문(體文, vyañjana), 즉 25아등5음(二十五阿等五音), 그리고 9초음(九脣音) 등을 포함한 50자이다. 12전성은 “a, a : i, i : u, ū : e, ai : o, au : am, ah”와 같은 기본 모음에 해당하는 것이며, 4조음은 “r, ṛ, l, ḷ” 등이 속한다. 안심사본(安心寺本) 진언집(眞言集)(1569년)과 망월사본 진언집(1800년)에서 이에 대응시키고 있는 한글음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안주호, 2002d)

<표1 : 12전성>

a 阿(上)	a 啊(去)	i 伊(上)	i 唎(去)
:아 :으 :어 :으	·아 ·으 ·어 ·으	:애 :이 :에 :이	·애 ·애 ·예 ·이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하	·해 :하 :해 :하	·해 ·하 ·해 ·하
u 烏(上)	ū 鳴(去)	e 曳(去)	ai 愛(入)
:와 :오 :워 :우	·와 ·오 ·워 ·우	:애 :에 :예 :이	·애 ·이 ·에 ·의
:화 :호 :휘 :후	·화 ·호 ·휘 ·후	·애 ·에 ·예 ·여	·해 ·하 ·해 ·희
o 汙(去)	au 吽(入)	am 暗(去)	ah 惡(入)
와 ·오 ·워 ·우	·와 ·오 ·워 ·우	:암 :음 :엄 :음	·악 ·옥 ·억 ·옥
화 ·호 ·휘 ·후	·화 ·호 ·휘 ·후	·함 ·함 ·허 ·흠	·학 ·하 ·허 ·혹

<표2 : 4조음>

r 里(上)	ṛ 哩(去)	l 梨(上)	ḷ 唎(去)
:래 :래 :래 :리	·래 ·래 ·래 ·리	:래 :리 :래 :리	없음
:래 :리 :래 :리	·래 ·리 ·래 ·리	:래 :리 :래 :리	·래 ·리 ·래 ·리

범어의 기본 모음은 한자와 한글로 음사할 경우, 음운체계가 달라 가장 유사한 음으로 대응을 시켜 놓고 있다. 위에서 보듯이 범어는 장단음이 발달된 언어이므로, 이를 우리말로 표기할 경우 방점으로 변별해 놓고 있는데, “a: a, i: i, u: ū, o: au”의 대응 한글음은 방점만 다를 뿐 모두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다. 또한 4조음의 경우 우리말에서는 /r, l/도 변별이 불가능한데, 이것의 장음인 /ṛ, ḷ/을 구별하기란 더욱 쉽지 않으므로, 방점만 차이가 날 뿐 4음소를 한글음으로는 모두 동일음으로 대응시키고 있다. 안심사본 <진언집>(1569)에서는 /ḷ/는 공란으로 됨으로써 대응음을 찾기 어려움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자음에 해당하는 것은 25아등5음(二十五牙等五音)과 9초음(九超音)이다. 25아등5음은

발음되는 위치에 따라 구분되는데, 아음(牙音)은 “k, kh, g, gh, n”로서 음성학적으로는 연구개음에 해당하는 것이며, 치음(齒音)은 “c, ch, j, jh, ñ”으로서 경구개음에 해당하는 것이고, 설음(舌音)은 “t, th, d, dh, n”로서 권설음에 해당하는 것이다. 후음(喉音) “t, th, d, dh, n” 등은 우리말로써는 치경음에 가깝지만, 범어로는 성문 가까이서 나는 소리이므로, 후음이라 했다. 그리고 순음(唇音)은 “p, ph, b, bh, m”로서 양순음에 해당하는 것들이며, 이외에도 “y r l v ś ṣ s h kṣa”의 9초음이 있는데, 이 음들은 독자적으로 소리를 내지 못하고 다른 것과 어울려야 소리를 낸다고 하여, 화회성(和會聲)이라고도 한다. 이중 마지막의 /kṣa/는 어두자음군으로 된 중자(重字)이다. 25아동5음과 9초음의 안심사본 <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에서 대응시키고 있는 한글음은 다음과 같다.

<표3 : 25아동5음>

	①淸音	②淸音/氣音	③濁音	④濁音/氣音	⑤鼻音
牙音	ka 迦(平/淸)	kha 佉(平/濁)	ga 戛(上)	gha 伽(去)	ṅa 仰(入)
	가 마 거 그	카 쿨 커 크	:아 :어 :어 :으	·가 ·마 ·거 ·그	·앙 ·옹 ·영 ·용
	가 마 거 그	카 쿨 커 크	:아 :어 :어 :으	·까 ·마 ·꺼 ·꼬	·앙 ·옹 ·영 ·용
齒音	ca 左(平/淸)	cha 差(平/濁)	ja 惹(上)	jha 社(去)	ṅa 攬(入)
	자 즈 저 즈	차 츠 처 츠	:아 :으 :어 :으	·자 ·저 ·조 ·즈	·샹 ·송 ·영 ·송
	자 즈 저 즈	차 츠 처 츠	:아 :으 :어 :으	·짜 ·쯔 ·쩌 ·쯔	·샹 ·송 ·영 ·송
舌音	ta 吒(平/淸)	tha 佉(平/濁)	da 拏(上)	dha 荼(去)	ṅa 囊(入)
	다 드 더 드	타 투 터 트	:나 :느 :너 :느	·다 ·드 ·더 ·드	·낭 ·농 ·녕 ·능
	다 드 더 드	타 투 터 트	:나 :느 :너 :느	·따 ·뜨 ·떠 ·뜨	·낭 ·농 ·녕 ·능
喉音	ta 多(平/淸)	tha 佉(平/濁)	da 那(上)	dha 駄(去)	ṅa 娜(入)
	다 드 더 드	타 투 터 트	:나 :느 :너 :느	·다 ·드 ·더 ·드	·낭 ·농 ·녕 ·능
	다 드 더 드	타 투 터 트	:나 :느 :너 :느	·따 ·뜨 ·떠 ·뜨	·낭 ·농 ·녕 ·능
唇音	pa 波(平/淸)	pha 頗(平/濁)	ba 摩(上)	bha 婆(去)	ma 莽(入)
	바 브 버 브	파 프 퍼 프	:마 :머 :머 :므	·바 ·브 ·버 ·브	·망 ·몽 ·명 ·몽
	바 브 버 브	파 프 퍼 프	:마 :머 :머 :므	·빠 ·쁘 ·뿌 ·쁘	·망 ·몽 ·명 ·몽

진언의 범어음을 한자와 한글로 음사한 것을 대응시켜 보면 위와 같다. 범어에서 이 다섯 부류 중 각 소리의 ①②는 청음(淸音), ③④는 탁음(濁音), ⑤는 비음(鼻音)으로 나뉘어지고, 그리고 ②와 ④는 기음(氣音, aspirate)의 성격울 갖는다고 한다.(이태승, 2000) 이에 대해 국내본 진언집인 안심사본과 망월사본에서는 ①②는 평성이고, ③은 상성, ④는 거성, ⑤는 입성으로 나누었다. 그런데 범어에서의 ①과 같은 예사소리로 표기된 [k, c, t, t, p]는 청각음성학적으로 우리말 화자에게는 된소리인 “까, 짜, 따, 따, 빠”에 가깝게

들리고,⁵⁾ 또한 기음(氣音)인 ②의 [kh, ch, th, th, ph]는 거센소리인 “카, 차, 타, 타, 파”로 들리며, 탁음 중 평음인 ③의 [g, j, d, d, b]는 우리말에서의 예삿소리인 “가, 자, 다, 다, 바”로 들린다. 탁음 중 기음인 ④는 [gh, jh, dh, dh, bh]는 우리말에서는 “그하, 즈하, 드하, 드하, 브하”에 가깝게 들린다.

그러나 범어를 한자로 음사하고 이를 다시 한글로 음사하는 과정에서 체계를 맞추다 보니, 위와 같이 본래 진언인 범어음에서 벗어난 한글표기를 하게 되었다. 특히 자음의 체계를 맞추다 보니, ③과 같이 탁음/평음인 [ga, ja, da da, ba]는 한글로 음사할 경우, “아, 사, 나, 나, 마”로 표기하여 본래의 범어음이나 한자음과 상당한 괴리가 생기게 되었다. 또한 ④와 같은 탁음/기음은 우리말로 옮길 때, 안심사본 진언집에서는 예삿소리로 표기되었으나, 망월사본 진언집에서는 각자병서로 표기하고 있다. 이것은 망월사본의 권수내용은 범어음에 가깝게 한글음을 수정하고자 한 목적으로 편찬된 것이므로 실제 범어음에 대응음을 맞추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망월사본 <진언집>의 실제진언 표기에서도 각자병서 표기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점은 현행 외래어 표기법에서 첫소리에 된소리 표기를 쓰지 않는다는 점과 동일하다.⁶⁾

<표4 : 9초음 >

ya 野(上)	ra 囉(去)	la 囉(平)	va 嘩(上)	sa 舍(去)
:야 ·야·여 ·어	:라 ·라·러 ·르	라 ·라 ·러 르	:바 ·바 ·버·브	:샤 ·시 ·셔 ·시
:야 ·여 ·요 ·유	:라 ·라·러 ·르	라 ·라 ·러 르	:바 ·바 ·버·브	:샤 ·시 ·셔 ·시
sa 沙(平)	sa 薩(上)	ha 賀(去)	kṣa (平)	
사 스 서 스	:사 :스:서 :스	·하 ·하 ·허 ·호	乞洒가사 ㄱ사 거서 그서	
사 스 서 스	:사 :스:서 :스	·쌌 ·헛 ·써 ·흐	乞灑가사 ㄱ사 거서 그서(二合)	

또한 홀로 쓰이지 못하고 다른 음과 결합되어야만 소리를 낸다는 9초음도 <표4>와 같이 범어음과 한글음을 대응시키고 있으나, [ra, la]의 대응 한글음도 동일하며, 권설음적인 [sa]와 치음인 [sa]도 구별이 안 되어, 대응 한글음이 동일하다. 마지막의 [kṣa]는 어두자음군을 이룬 것으로 한자로는 ‘二合, 三合’하여 표시되는 중자(重字)이다.(중자에 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논하려 한다.)

5) 이에 대해서는 범어학자인 위덕대학교 불교문화학부의 김무생 · 이태승 교수님께 도움을 받아 확인하였다. 또한 일찍이 최현배(1961:559)에서도 병서표기의 음가에 대해 다루면서, “한글의 된시옷에 해당하는 범자가 시옷의 소리로 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

6) 현행 외래어표기의 제4항에는 ‘파열음 표기에는 된소리를 쓰지 않는다’는 기본 원칙이 있다.

4. <오대진언>에서의 진언표기

4.1 <오대진언>의 표기의 특징

<오대진언>의 표기의 특징을 보면, 첫째 절 경계가 한역에서는 '대비심다라니'와 같은 짧은 진언은 표시되어 있지 않으나, '대비심신묘장구대다라니' 등과 같은 긴 진언에서는 "一, 二, 三" 등으로 표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10구절을 넘을 경우는 "一十, 二十, 三十" 등으로 표시해 놓고 있다. 이에 비해 한글 음사에서는 진언이 짧은 길든 우권점 "。" 부호로 각 구절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는 한글 진언 독송에 있어서의 단락 구분에 대한 귀중한 예라 하겠다. <월인석보>에서는 한역된 진언 아래 한글표기가 있으므로, 구절경계가 한역과 동일하게 나뉘어져 있다. 그러나 <오대진언>의 한글 음절 경계는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방식 그대로를 답습한 것이라기보다도, 한자로 음사된 것을 참고하기도 하였으나, 독자적으로 해독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우권점 "。"의 표시는 본래 범어음과 달라진 경우가 많으며, 한역에서는 절 경계가 표시되지 않은 부분도 나뉘어졌음을 볼 수 있다.

(1)a. Namo ratna-trayāya?

囊 謨_리 囉 怛囊 怛囉 夜 野

·나 ·모 ·라 ·드·나·드·라 ·야 :야 <오대:24b>

b. Nama āryāvalokiteśvarāya bodhisattvāya

囊 莫 啊 哩 也 嚩 路 枳 諦 濕 嚩 囉 野 冒 地 薩 怛 嚩 野

·나 ·막·알·약·바 ·로 기 :데·시·바·라 :야 °·모·디·사드·바·야

mahāsattvāya

摩 賀 薩 怛 嚩 野

:마·하·사 드바 :야 <오대:24b>

c. Om alokae ālokaṃ lokātikrānta

唵 阿 路 計 阿 路 迦 麼 底 路 迦 底 羯 蘭 諦

:음·아·로 :계·아·로 가·마 ·디·로·가·디 ㄹ·란 :데 <오대:25b>

(1)과 같이 절경계가 범어음의 경우와 많이 달라짐을 볼 수 있는데, (1a)는 본래 "나모. 라드나. 드라야야"로, (1c)는 "아로가마디. 로가디ㄹ란데"로 구분되어 하는데, 범어음과 절경계가 다르게 구분되어 있다. (1b)는 본래 범어로는 한 어구인데 한글로는 3구절로 더

7) 이 문헌에서 범어는 실담문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활자화할 수가 없어, 로마자로 대신한다. 범어의 로마자 표기는 정각(1996)을 참고하였다.

나는 것이다. 한역된 짧은 진언의 경우는 (1)과 같이 절의 경계가 표시되지 않았지만, 한글로는 구절을 나누었는데 보통 한역의 1구절을 한글로는 대체로 3구절의 3,4조로 나누었다. 이에 대해 정태혁(1988: 396-400)은 단락 구분의 이유를 “우리 고유 음율 3, 4 내지 7,5조를 즐기는 탓”에 기인한다고 했다. 이렇게 어절의 경계가 달라진 것은 진언 본래 음을 한글로 음사한 것이 아니라, 한자로 음역된 것을 다시 한글로 음사하여, 이미 한역에서부터 절경계가 잘못 규정된 경우도 있으며, 아울러 진언이 길 경우 독자적으로 해독하여 우리말에 가까운 독법으로 경계를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기의 특징 중 둘째는 (1),(2)에서 보듯이 중자(重字)를 표기할 때, 이합(二合), 삼합(三合) 등의 표시가 없다는 점이다. 범어는 어두자음군을 첫소리에 둘 수 있는데, 이러한 자음군을 한자로 음사할 경우에는 윗글자의 성모와 아랫글자의 운모를 맞추어 표기했다. 실담문자로는 하나의 문자인데, 한역할 경우에는 한자 2개나, 3개 혹은 4개로 음사된다. 이 경우 다른 문헌에서는 해당 한자 옆에 1/2크기로 “二合, 三合” 등의 표시를 하고 있으나, <오대진언>에서는 그러한 표기를 찾아볼 수 없다. 망월사본 <진언집>의 실제 예인 (12)와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다.

- (2)a. 唵引 嚩 且囉 祇儻 鉢囉 你 鉢多野 薩嚩 賀
 :음. :바 :스·라 .오·니 브·라 ·넵 다 :야 . 스·바 ·하 <오대:5b>
- b. 唵引 枳 哩 枳 哩 嚩 且囉 部 囉 畔 馱 昨 泮 吒
 :음. ·기 ·리 ·기 ·리. :바 :스·라. ·불 ·반 ·다 . :흠 바 탁
 <오대:12a>

셋째, 한자 음역에서는 범어음과 체계가 다른 한자로 음사를 하면서 되도록 범어에 가깝게 전사하기 위해 특별한 발음법에 대해 1/2 크기로 표기되어 있다.

- (3)a. 娜 計引 囊
 :나 . :계 나 . <오대:42b>
- b. 發 吒半音 發 吒入
 바 ·닥 바 ·닥 <오대:81a>
- c. 婆上 囉 拈九
 :바 ·라 ·니. <오대:22b>
- d. 阿 鼻 誑去 左 都 茗
 :아 :비 . ·선 자 :도 :명 <오대:42b>
- e. 嚩 底入 怛 賴
 :바 ·디 . 드 래 <오대:46a>

f. 虎努 虎努 乞史

·호 :노 ·호 :노 . ㄹ:시 <오대:40b>

범어는 장단음이 매우 발달한 언어인데, 장음을 나타내기 위해 (1)(2)(3a)의 “謨, 囉, 訶, 訶” 등과 같이 장음을 내는 한자 부분에는 “ㄹ”을 써서 장음을 나타내도록 하고, 특별히 짧게 단음으로 발음해야 하는 곳에서는 (3b)처럼 “半音”이라는 표시를 해 놓고 있다. 또한 범어에서의 장단음을 한역으로는 사성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그리고 특별히 입성(入聲)이나, 거성(去聲), 그리고 상성(上聲)을 나타내야 하는 경우에는(3c-f)처럼 “入, 去, 上”을 1/2 크기로 작게 표기하고 있다. 한글 음사에서는 <오대진언>뿐만 아니라, 대부분 방점 표기를 철저히 하고 있는데, <오대진언>의 방점표기가 모형을 되어 후대에 나온 <진언집> 등에서도 방점표기는 철저히 하고 있다. 특히 1800년대 방점의 기능이 완전히 소멸한 후에 간행된 망월사본 <진언집>에서도 방점 표기는 계속되고 있어, <오대진언>이 한글표기에서의 전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a. 舍 番 駱

:샤 :바 노 <오대:62b>

b. 麼 麼

·마 ·마 <오대:85b>

c. 薩 囉囉 囉囉字舍口

·살 :바 굼 <오대:82b>

d. 發 吒 嚙嚙捺理 裔

바 ·닥 ·로 ·느·리 :예 <오대:85a>

한자로 음사된 진언표기에서 특징적인 것은 (4)와 같이 특이한 발음법에 대해서는 그 옆에 1/2 크기로 적어 놓고 있다는 것이다. 범어는 <표3>에서 보듯이 비음과 권설음이 발달했는데, “na 仰(入), ña 攢(入), na 囊(入), na 娜(入), ma 莽(入)” 등의 비음성을 나타내기 위해 ‘鼻’로 표기를 했다. 또한 1회만 보이지만, 범어의 권설음을 표시하기 위해 (4d)처럼 “舌轉”이라는 표기를 한 것도 찾아볼 수 있다.

4.2 <오대진언>의 한글 표기

<오대진언>은 본격적인 진언집이라 할 수 있는 안심사본이 나오기 이전에 그리고 한글이 창제된 후, 40년 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당시의 현실음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⁸⁾ <오대진언>에는 진언만이 실려 있으므로, 범어음과 대응되는 구체적인 한글음에 대해서는

대진언>에서 이들 음은 다음과 같이 음사된 것을 볼 수 있다.

- (6)a. ajevarṃ sarva-bhūtanāṃ, ghara-mārga viśodhakam
 阿齊琰 薩 嚩 嚩 步 踰 嚩 婆 嚩 沫 嚩 誡 尾 戍 馱 劔
 :에:세:염·살·바:보·다·남·바 :바·말 :아·미·슈·다:감<오대:25b>
- b. hrdayarṃ yartayīṣyāmi sarvārtha- sādhanarṃ śubharṃ
 訖哩 娜野 麼嚩 嚩踰 以瑟也彌 薩嚩嚩 囉也 婆馱喃 輸件
 ·ᄃ:리:나:야:마:발:다:이:사:미·살·발·타·사·다·남·슈·반<오대:25a>

이런 표기방법은 불경독송 원리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ga]는 ‘아’로, [j]는 ‘△’으로, [d]와 [ḍ]는 ‘ㄴ’으로, 그리고 [b, v]는 ‘ㄹ’으로 대응 표기되어, 본래의 음과 달라짐을 볼 수 있다.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범어음 [gate]에 해당하는 것을 한역으로는 “揭諦揭諦”로 표기하고 있지만, 현재 우리말로는 “아제아제”라고 읽는다. 이를 두고 범어 ‘gate’에서 어두음 ‘g’이 탈락했다고 설명하거나, 독송 시에 발음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 생겨난 현상으로 보기도 하고(최세화 1992:607), ‘揭’자를 ‘알/아’로 읽는 것은 진언적인 특징이라고만 밝히기도 한다(정우영 1996:141). 그러나 이는 <표3>에서 보듯이 범어음을 우리말의 음과 체계를 맞추어 적다 보니, “ka”음은 “가 ㄱ 거 그”로, “kha”음은 “카 ㅋ 커 크”로, “ga”음은 “:아 :ᄃ :어 :으”로, “gha”음은 “:까 :ㄱ :꺼 :ᄃ”로, “ṇa”음은 “:ᄃᄃ·ᄃ·ᄃ·ᄃ”로 표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한자음과 한글음만 대조해 보면 한자음과 괴리가 생겼다고 할 수 있지만, 이는 범어음을 변별하여 적기 위한 방법이었음을 알 수 있다.(안주호 2002b)

초성의 진언표기에서 보이는 세 번째 특징은, 각자병서 표기가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이 보통인데, <오대진언>에서는 각자병서로는 “ㄱ, ㄴ”이 각각 1회씩 나타난다는 것이다. 각자병서 표기는 일반적으로 진언 표기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더구나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중차 표기의 경우뿐인데, <오대진언>에서는 각자병서 표기가 이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 (7)a. 伽去 多上野 薩嚩 尾觀囊_{四리} 惹野 惹野_五
 ·카 :다 :야. ·살·바. ·미·ᄃ·나 . :사 :야 :사 :야. <오대:45b>
- b. 矩嚩矩嚩_二 嚩嚩_三 摩賀尾囉_四
 :구·로 :구·로. :에 :ᄃᄃ :ᄃᄃ. ·마·하·미·라. <오대:31a>

위와 같은 예들은 단 한 차례만 나타날 뿐이며, 예삿소리로 표기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7b)과 같이 “ᄃᄃ”로 나타난 것은 단 한차례인데 비해, “ehy-ehy 嚩醯曳咽 :에:ᄃᄃ:ᄃᄃ

<오대:36b>”에서와 같이 “ㅎ”로 나타나는 경우는 21차례가 되어 (7)과 같은 각자병서 표기가 일반적인 예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넷째, 초성의 표기에서는 합용병서 그 중에서도 “ㅅ”계 합용병서가 다수 나타나고 있다. “ㅅ(9회) ㅅ(9회), ㅅ(55회), ㅅ(2회), ㅅ(17회), ㅅ(6회)”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순수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ㅅ, ㅅ”이 나타나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8)a. 囊 莫 塞訖哩 恒嚙

·나·막·ㅅ:리 ㄷ·바* <오대:66b>

b. 塲瑟拏 鈿五引 南莫薩囉嚙沒馱六引

·오·ㅅ | :삼. ·나·막·살바·몰·다 <오대:61b>

c. 薩 囉嚙引 納 瑟吒 禡 娑嚙入娑難

·살·바 ·노 ㅅㅅ . ·녹·ㅅ·나 <오대:67a>

d. 阿 跛 娑麼 囉 隴囉 賀六引

·아 바 ·ㅅㅅ·라 ·ㅇ·라 ·하 <오대:75a>

e. 尾 瑟普 姪 母 地 穉 弟

미 ㅅㅅ 타 모 디 순 테 <오대:95a>

f. 地 瑟耻 帝引 娑嚙引 賀一引

·디 :ㅅ :데 . ㅅ·바·하 <오대:46a>

‘ㅅ’계 합용병서인 “ㅅ, ㅅ, ㅅ, ㅅ, ㅅ, ㅅ” 등은 어두자음군의 중자표기에서 보인다. 범어는 어두자음군이 이체중자로 올 수 있는 언어인데, 위의 (8)에서 보이는 예들은 모두 ‘s-계’ 자음군이다.¹⁰⁾ (8a)는 ‘skritva’를, (8b)는 ‘sn’를, (8c)는 ‘stha, spapbana’를, (8d)는 ‘sma’를, (8e)는 ‘spo’를, 그리고 (8 f)는 ‘sth’에 대응된 한글음이다. 순수국어에서는 ‘ㅅ, ㅅ, ㅅ’ 등은 나타나지만, ‘ㅅ’은 ‘ㅅㅅ히’ 정도가 보일 뿐이고, 더구나, ‘ㅅ, ㅅ’은 진언의 표기에서만 보이는 형태들이다.¹¹⁾ 그러나 같은 문헌 안에서도 같은 범어음임에도 불구하고

10) 이체중자(異體重字)란 서로 다른 글자들을 결합시켜 놓은 것으로 발음도 따로따로 구분된다고 한다.

(i) 跛(pa)와 多(ta)를 결합시킨 阿跛多(pta),

(ii) 吒(ta)와 迦(ka)를 결합시킨 阿吒迦(tka)

(iii) 娜(da)와 薩(sa)과 嚙(va)를 결합시킨 阿娜薩嚙(dsva)

(iv) 吒(ta)와 瑟(sa) 車(cha) 囉(ra)를 결합시킨 阿吒瑟車囉(tschra)

“pta, ptā, pti, pti, ptu, pti, pte, ptai, pto, ptau, ptam, ptah, tka, dsva, tschra, tschrah” 등의 이체중자가 있는데, 이는 각기 다른 자음을 반복시키는 것으로, 발음 또한 각기 다르게 발음되기 때문에 이체어음이라고 말한다.(이태승, 2000)

11) 최현배(1961: 557-559)에서 진언의 ‘ㅅ’계 합용병서에 대해 언급해 놓고 있다.

고, (8)처럼 1음절의 합용병서로 표기된 '시, 시, 시, 시, 시, 시'이, (9)처럼 '스가, 스나, 스투, 스마, 시바/스바, 시트'로 약모음 “·” 또는 “|”를 개입시켜 2음절로 표기된 예도 다수 찾아 볼 수 있다.

(9)a. 婆建蛇 你 捨

스:간타:니·샤* <오대:28b>

b. 娑麼 囉 娑麼 囉

스마 라 스마 라 <오대:95b>

c. 都 瑟 拏 鈿

:도 :스니 삼 <오대:66b>

d. 悉體 踰 訖哩瑟 拏 亦 囊 野 婆囉賀

·시:테 다*?릿· 나*:시·나:야*스·바·하* <오대:28b>

이런 점은 표기에 있어서 일관성이 없는 태도로 보이나, 국어학계에서의 논란 거리 중 하나인 합용병서의 음가를 추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어 주목을 받았다.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세 가지 견해로 압축시킬 수 있다. 첫째는 ‘스’계나 ‘비(ㅍ)’계나 초성 합용자는 그 합용자 자체의 음가를 나타낸다는 설이고, 둘째는 ‘스’계는 된소리, ‘비(ㅍ)’계는 어두자음군이라는 설과 셋째는 합용병서는 다 된소리라는 설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의견의 대표적인 예인 최현배(1961:557-559), 허웅(1965, 1985:344-363)에서는 합용병서자들이 제각각의 낱소리를 가졌음을 첫째, 훈민정음 해례에 설명이 따로 없다는 점, 그리고 범어의 소리 옮김 등을 뒷받침 근거로 삼아 이들이 제각각 소리를 가졌다고 했다. 이에 비해 최세화(1983,1992), 정우영(1995) 등에서는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이 첫째는 우민(愚民)에 대한 문자생활을 영위하게 해 주기 위함이고, 둘째는 외국어를 적기 위함의 이원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초성의 합용병서자도 이원적으로 발음이 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초성 합용병서의 음가는 국어표기에서는 내파적 자음군이며, 범어 등, 외국어 전사에서는 영어의 자음군과 같은 외파적 자음군으로 실용화되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즉 순수 국어를 적을 때에는 경음화되었고, 외국어를 적었을 때에는 외파적 자음군으로 각각의 소리를 가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진언표기에서만 본다면 합용병서자들은 제 각각의 소리를 가졌으리라 추정할 수 있다. 범어체계에서 이체중자에 해당되는 것을 한자로 음역할 때는 이에 대응되는 한자가 없을 경우 비슷한 성모를 가진 한자를 이합, 또는 삼합함으로써 범어음에 가깝게 적고 있다. 이것을 한글로 음역할 경우에는 합용병서를 이용하여 본래의 음가를 살려 주고 있으므로, 합용병서자들은 모두 낱날의 소리값을 가졌을 것이다. 더구나 같은 범어음인데도 불구하고, (9)처럼 쓸 수 있다는 것은 적어도 진언표기에서는 각 음으로 소리가 났음으로 판단할

수 있다.

2) 중성표기의 특징

중성에서는 총16 음소가 쓰였는데, 이중 “ㅏ > ㅣ > ㅓ > ㅗ > ㅛ > ㅜ > ㅠ”의 순으로 많이 쓰였으며, “ㅕ, ㅖ, ㅗ, ㅛ, ㅜ, ㅠ, ㅡ” 등은 전체에 비해 빈도가 극히 드물다. 또 중성 7298회 중 “ㅏ” 음소는 그 중 반을 차지하여 3492회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표1>에서 본 바와 같이 본래 범어음의 음운체계에 기인한 것이다.

중성	ㅏ	ㅛ	ㅜ	ㅠ	ㅓ	ㅗ	ㅛ	ㅜ	ㅠ
횟수	3492	485	18	61	531	3	118	93	
중성	ㅡ	ㅣ	ㅏ	ㅓ	ㅗ	ㅛ	ㅜ	ㅠ	ㅑ
횟수	11	1008	637	18	3	359	1	10	

어두자음군의 표기법은 범어와 비교하여, 음운체계가 다른 언어에서는 실제의 발음에서 schwa에 해당하는 일종의 약모음을 삽입하여야만 발음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합용병서 표기에서 보인 이합자의 첫째 자의 모음표시가 대체로 아래아(·)자나 간혹 “-ㅣ”로 되어 있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는데, 아래아(·)자는 실제 한 자의 모음은 아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심재기, 1976:267)

3) 중성표기의 특징

중성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
횟수	237	182	77	234	376	9	4	66

중성은 위와 같이 8가지 종류가 쓰였는데, 이것은 당시에 일반적인 한글 표기 방식인 <훈몽자회 범례>의 방식을 따른 것이다. 그런데 다른 문헌과 비교해 보면, <오대진언>에는 중성의 종류와 나타난 횟수가 매우 많은 편인데,¹²⁾ 이는 <오대진언>의 표기의 특징 중의 하나로서, 어두자음군을 표기하는 중자의 첫 음을 바로 앞자의 중성으로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4) 중자표기의 특징

<오대진언>의 표기 중에 가장 특이한 것은 중자(重字) 표기이다. 이는 범어의 특성인

12) <진언권공·삼단시식문 언해>에서는 다음과 같이 “ㄱ, ㄴ, ㄷ, ㄹ, ㅁ, ㅇ”의 6자만이 중성에서 사용되고 있다.(안주호, 2002c)

어두자음군을 적는 방법으로서 <표4>의 “가사(乞洒, ksa)”의 예에서 볼 수 있다. 이는 범어로서는 하나의 글자로서, 소리가 화합하여 모이는 것을 말하는데, 한자로 음사할 때는 2합, 3합 등으로 배열하여, 예를 만드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은 망월사본 <진언집>의 권수인 ‘범본오십자모십담장(梵本五十字母悉曇章)’에서 9초음 중 ‘걸쇄(乞灑)’에 대한 설명과 관계가 있다.

(10) “걸쇄”는 합하여 一자가 되는 것으로 소리가 화합하여 모이는 것을 말한다. 역시 2합, 3합 등으로 배열되는데, 장차 전성, 초음, 조음과 더불어 초중성이 합용되어 언문과 같이 이루어져 예를 만드는 것이다. (乞灑合爲一者 謂之和會聲 亦二合三合等例爾 將次 轉聲超音助音 與初中聲合用 如諺文作 行例者) <망월사본 진언집 권수:15b>

(11) 五音자 중에 만약 위의 12성과 반대인 것은 즉 한자 반절식과 같다. 만약 아래 ‘초음’과 서로 합하여져 마치 乞洒처럼 上자의 半訓과 下자의 全訓이 합하여진 것이다. (五音之字若與 上十二聲反之則如漢字反 若與下超音相合則 如乞洒之類 上字半訓下字全訓) <망월사본 진언집 권수:22b>

두 글자로 된 경우는, 한자의 반절식(反切式)으로 읽는데, 한자의 반절식이란 반절의 윗 글자에서 성모(聲母)를 취하고, 아랫 글자에서 운모(韻母)를 취하는 방법이다.¹³⁾ 위 인용문에서 반훈이란 성모를 의미하고, 전훈이란 성모와 운모, 모두를 뜻하는 것이다. 여기서 예로 든 ‘乞洒는 <표4>에서 초음 중 이중체자 “kṣa 乞灑”와 같은 예로서 한글로 음사할 경우에는 “가사, ㄱ사, 거서, 그서”로 음사된다. 범어의 어두자음군을 한자로 음역할 경우에 효과적으로 적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으므로, 중자로 표기했던 것을 한글로는 다양하게 표기하고 있다.

(12)a. Om sarbha pradhi mukṣaḥrdhaya svāhā

:음 ° ·살·바·브라 ° ·디 ·목사·흐:리 타야 ° ·스바 ·하

唵 薩婆波囉(二合) 提 幕叉 嚧唎(二合) 施耶 莎去 訶

<망월사본 진언집 持戒眞言>

b. Om sarpmāi svāḥ

:음 ° ·삼:미야·쓰:발

唵 三昧耶 薩担鉢(三合)

<망월사본 진언집 三昧耶戒眞言>

13) 예를 들어 ‘행(行)은 하(下)·맹(孟)의 반절이다(行下孟反)’, ‘요(樂)는 오(五)·교(敎)의 반절이다(樂五敎反)’와 같이 표현된 병음은 반절의 윗글자(하, 오)에서 각각 성모(ㅎ, ㅛ)를 취하고, 아랫글자(맹, 교)에서 운모(ㅣ, ㅟ)를 취하여 각각 성모와 운모를 합해 반절된 글자의 독음(行행, 樂요)을 읽어내는 방법이다.(정우영, 1995:80)

(12)의 예를 보면 “pra”를 한자로는 “波囉(二合)”로 한역하고, 이를 다시 “바라”로 한글 음역을 하였다. “hr”의 경우에도 한자로는 “嚙喇(二合)”의 반훈과 전훈을 따서 음사하고 있으며, 한글로는 “하리”로 음사하고 있다. 그 아래 범어 “stvāp”는 어두에 복자음 3개가 나오는데, 이를 한자로 음사할 경우에는 薩怛鍜(三合)로 한글로는 ‘ㅅ:밤’로 표기한다. 한역된 “薩”에서 반훈인 [s]를 따오고, 怛에서 역시 반훈인 [t]를, 鍜에서는 전훈인 [vāp]을 따오고 있다. 이것은 범어와 중국어 사이의 차이로 어두자음군이 생길 경우 한자로는 이합, 삼합으로 중자 표기를 하는데, 이를 다시 한글로 옮길 경우, 최소한 줄여서 하나의 음절로 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 것이다.

<오대진언>에서 보이는 중자 표기에는 독특한 면이 있는데, 한글 표기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12a)처럼 한역으로는 중자된 것을 한글로 음사할 때, 약모음 “·, |”를 넣어 음절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진언 표기에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둘째는 앞서 살펴본 (12b)처럼 합용병서로 쓴다는 것이다. 셋째는 앞 자의 성모와 뒤 글자의 운모를 합하여 1음절로 만드는 경우이다.

- (13)a. budhida - 沒地也 - 몰다
 b. śyā - 瑟也 - 샨
 c. dya - 你野 - :냐
 d. vyā - 跋野 - :바

(13)에서 보듯이 ‘dhida’를 한역으로는 “地也”로서 앞글자 ‘地’의 반훈인 ‘ㄷ’음을 따오고, 아랫글자인 ‘也’의 전훈을 따와 한글로는 “다”로 표기하고 있다. “śyā”도 한자로는 ‘瑟’의 반훈인 ‘ㅅ’과 ‘也’의 전훈인 ‘야’를 합하여 ‘샤’로 표기하고 있다.

중자를 표기하는 넷째 방법은 어두자음군 중 첫 자를 앞글자의 종성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 (14)a. karma - 羯唎麼 - 갈:마
 b. sraksa - 史囉乞灑 - 슻락 사
 c. carma - 撈唎麼 - 잘:마
 d. darśa - 捺哩捨 - 날샤
 e. kṛṣṇā - 訖哩瑟拏 - ㄱ:릿:나
 f. vartayiṣyāmi, sarvārtha-sādhanaṁ śubhan
 麼嚙唎步 以瑟也彌 薩唎嚙囉也 婆馱喃 輸件
 :마:발:다:이샤:미:살:발:타:사:다:남:슈:반:

(14)에서 보듯이 어두자음군의 첫 자인 “r, k, s”에 해당하는 한자로는 “ㄹ, 乞, 哩, 瑟”로 음사하였으며, 이것의 반훈인 “ㄹ, ㄱ, ㄷ, ㅅ”음을 앞자의 종성으로 사용하고 있다. 중자 표기 중 <오대진언>만이 보이고 있는 독특한 것은 네 번째의 방식이다.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방식은 <진언권공·삼단시식문 언해>나 망월사본 <진언집>등의 진언표기에서도 보이는 방식이지만, 어두자음군 중 일부가 앞 글자의 종성으로 사용된 예는 거의 드문 편이다. 이는 진언음을 표기하는데 있어 본래의 범어음은 물론, 한자 음사의 영향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읽혀지던 당시의 음을 표기한 것으로 보인다.

5. 맺음말

이 글에서는 한글이 창제되고, 본격적인 진언집이 나오기 이전에 현실음을 바탕으로 진언을 “범자-한글-한자”로 대응하여 표기해 놓은 <오대진언>을 중심으로 범어음과 차이가 있는 우리말을 한글로 어떻게 표기했는가에 중점을 두어 살펴보았다. <오대진언>은 14세기에 한역본이 있었으며, 이 글에서 다룬 상원사본은 초간본으로서, 불공이 범어를 한자로 음사한 ①대비심대다라니, ②대비심신묘장구대다라니, ③천수천안관자재보살근본다라니, ④대수구대명왕대다라니, ⑤대불정다라니, 그리고 불타파리에 의해 한역된 ⑥불정존승다라니로 구성이 되어 있다.

표기의 특징을 보면 한글 음사 부분에 우권점 “◦”으로 절결계를 이루며, 중자의 이합, 삼합 등의 표시는 없다. <오대진언>에서 쓰인 음소에는 초성에는 22종류, 중성에는 16종류, 그리고 종성에는 8종성이 쓰였다. 초성에는 각자병서 “ㄱ, 𑖅”이 각각 1회씩 쓰였으며, 초성의 표기 중에서 합용병서 그 중에서도 특히 “ㅅ”계 합용병서인 “ㅅ(9회) ㄷ(9회), ㅅ(55회), ㅅ(2회), ㅅ(17회), ㅅ(6회)”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순수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ㅅ, ㅅ”이 나타나는 점이 매우 특징적이다. 이들은 합용병서로 쓰이기도 하고, 또한 동일한 문헌에서 약모음으로 “·”나 “|”가 개입되어 2음절로 표기되기도 하나, 이것은 모두 범어의 어두자음군을 표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각 음이 모두 제 소리를 가졌을 것으로 본다. 중성에서는 16개의 음소가 사용되었는데, “ㅏ>ㅣ>·>ㅓ>ㅑ>ㅕ”의 순으로 많이 쓰였으며, 종성에서는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의 8종류의 음소가 사용되어, 대체로 <훈몽자회>의 방식으로 표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오대진언>의 특징 중의 하나는 어두자음군 중 첫 자를 앞글자의 종성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러한 예는 다른 진언의 표기에서 보이지 않는 매우 독특한 것이며, 이는 본래의 범어음은 물론, 한자 음사의 영향에서도 어느 정도 벗어나 독자적인 방식으로 읽혀지던 당시의 음을 표기한 것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오대진언>의 표기의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여기서 미처 살피지 못한 한자음과의 관계와 진언의 장단표시와 관련된 방점 표기에 대해서는 다른 지면에서 논의

하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 곽충구. (1977). *스게 어두자음군에 대한 소고*. *선청어문*, 8.
- 김동소. (1998). *한국어 변천사*. 서울:형설출판사.
- 김석득. (1983). *우리말 연구사*. 서울:정음문화사.
- 김영배. (2000). *국어사 자료 연구-불경언해 중심-*. 서울:월인.
- 남경란. (2000). '오대진언'과 '영험약초'에 대하여. *문헌과 해석*, 10, 태학사.
- 남권희. (1997). 고려말에서 조선중기까지의 구결자료에 관한 서지학적 연구. *도서관학논집*, 27.
- 남권희. (1999). 12세기 간행의 불교자료에 관한 연구. *서지학연구*, 17, 376-420.
- 남권희·남경란. (2000). 월인석보 권19의 서지 및 표법언화경 언해 권7과의 본문 대조. *국어사자료 연구*, 1. 국어사자료학회.
- 박병채. (1979). 진언집실담장고. *일산 김준영선생 화갑기념 논총*. 국어문화회: 69-86
- 심재기. (1976). 한자의 진언음사에 대하여, *김형규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사대 국어교육과:257-268.
- 안주호. (2002a). 망월사본<진언집>을 통해 본 실담문자의 이해, 제45회 국어국문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 안주호. (2002b). 망월사본 <진언집>을 중심으로 한 진언표기의 기초적 연구. *국어교육*, 109.
- 안주호. (2002c). <진언권공·삼단시식문 언해>의 진언표기방식 연구. *국어학*, 40.
- 안주호. (2002d). 안심사본<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의 비교연구, *배달말*, 31.
- 안병희. (1978). 진언권공·삼단시식문 해제. *진언권공·삼단시식문 영인본*, 국어학자료총서 2. 명지대 국어국문학과:3-14
- 안병희. (1987). 한글판 <오대진언>에 대하여. *한글*, 195. 안병희(1992)에 재수록.
- 안병희. (1992). *국어사자료 연구*. 문학과 지성사.
- 이태승. (2000). 중국에서의 실담학 형성에 대하여. *밀교학보*, 2.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141-169.
- 이태승. (2001). 지광의 <실담자기> 연구. *밀교학보*, 3.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 210-238.

- 정 각. (1996). *천수경 연구*. 운주사.
- 정재영. (2000). *영정조대의 한글문헌*. 대학사.
- 정우영. (1996). 念佛普勸文의 表記와 音韻, 念佛普勸文의 國語學的 研究, 동악어문학회. 119-164.
- 정태혁. (1988). 千手觀音 陀羅尼의 研究, 정통밀교. 서울:민족사
- 최세화. (1983). 초성 합용병서에 대한 두 가지 단상. *동악어문논집*, 17. 148-150.
- 최세화. (1992). 漢譯 般若心經 音譯語의 讀誦音에 대하여. *이기영박사교회기념총*. 597-612.
- 최현배. (1961). *고친 한글갈*. 서울:정음사.
- 허 응. (1965, 1985). *국어음운학(개정신판)*. 서울:정음사(샘문화사).

안주호

780-713 경북 경주시 강동면 유금리 산50

위덕대학교 동양어문학부

전화: (054)760-1772

이메일: anjh@mail.uiduk.ac.kr

Received: 7 Jan 03

Accepted: 23 Feb 03